

“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 전문가의 근로환경실태 설문조사” 결과를 보면서



창원대학교 공과대학
김 태 형

2012년 상반기에 (사)한국산업위생학회가 전국 97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산업위생전문가(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 담당) 941명을 대상으로 ‘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 전문가의 근로환경실태 설문조사’를 실시하였다.

그 결과,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 전문가들이 장시간 노동, 법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, 저임금,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작업환경측정기관 소속 전문가의 경우,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 응답자의 59%였으며,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52시간 이상도 11%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법정 연장근로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설문응답자의 72%가 법정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 전문가의 경우 학사 이상이 89%를 차지하고 40대 이상의 비율이 34%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봉 3,500만원 미만이 62%로

나타나 산업안전관리자, 대기환경관리자 등 유사학력 및 자격증 소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러한 이유로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 전문가의 이직률이 타 전문가 직종에 비해 높으며, 이직의 주요원인 역시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중한 업무로 나타났다.

이상의 결과는 조금이라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짐작하고 있었겠지만, 막상 분석결과를 접하니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. 언제까지 이대로 가야 하며, 이런 상황에서 작업환경측정의 질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분야 종사자들의 도덕성까지도 도마에 올려야만 하는가? 어느 능력있는 전문가가 작업환경측정을 계속하려고 하겠는가? 작업환경측정이 우리 산업보건분야의 기본중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, 이 기본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자기 분야의 일만 열심히 하면 프로페셔널한 본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 했노라고 몇 몇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?

‘왜 이 지경에 이른건지?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흘러왔던건지?’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.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초창기에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거의 포기상태가 되어 버린 것 같기도 하다.

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장·단기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, ‘과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작업환경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목적에 부합하는 감시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았는가? 만약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왜 이대로 그냥 흘러오도록 방치하고 있는가?’ 이다.

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할 지 모르겠지만, 요즘 사업장들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정할 때 오직 한 가지 기준만 고려한다고 한다.

“가장 싼 곳!” 예전에는 사업장의 입장을 잘 반영해주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측정비용을 요구하는 측정기관에 맡겼지만, 지금은 거의 모든 측정기관이 사업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주기 때문에 싸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.

이렇게 “갑·을관계”가 분명한 상태로 작업환경측정기관더러 사업장을 잘 감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.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둔 채 기관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.

이런 지경에 이르다보니 사업장 감시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,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위생기사들의 처우가 나빠질 수 밖에 없으며, 작업환경측정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.

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. 그냥 이런 저런 이유로, 확실한 해법이 없다는 이유로 세월만 흘러보내면 산업보건 분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? 스스로 자문해본다. 🤔